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자아탄력성

장현정<sup>†</sup> · 정가연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2018년 1월 31일 접수: 2018년 3월 2일 수정: 2018년 3월 8일 채택)

### Stress in before clinical practice, anxiety, ego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Hyun-Jung JANG<sup>†</sup>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 730, Gangdong-ro, Sandong-myeon, Gumi-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Received January 31, 2018; Revised March 2, 2018; Accepted March 8, 2018)*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첫 임상실습을 앞둔 K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는 여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t=-5.51, p<.001$ ), 불안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t=-3.30, p=.001$ ),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낄수록( $F=3.27, p=.041$ ), 성격이 내성적일수록( $t=-3.32, p=.001$ ),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F=7.25, p=.001$ )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낄수록( $F=3.74, p=.026$ ),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t=3.19, p=.002$ )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에서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와 불안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211, p=.010$ ), 자아탄력성과 불안은 음의 상관관계( $r=-.313,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습 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량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스트레스, 임상실습, 불안, 자아탄력성, 간호대학생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for analyzing the relevance among stress, anxiety, and ego-resilien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second-year students in a K college who were anticipating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The survey result showed that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stress levels than male students ( $t=-5.51, p<.001$ ) before clinical practice. Female students also showed higher anxiety levels than male students ( $t=-3.30, p=.001$ ) before clinical practice. The students showed higher anxiety levels before clinical practice as they felt more strongly that they were in bad health ( $F=3.27, p=.041$ ), as their personality was less outgoing ( $t=-3.32, p=.001$ ), and as they had a lower satisfaction level in their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jangah74@hanmail.net](mailto:jangah74@hanmail.net))

major ( $F=7.25, p=.001$ ). The students showed higher ego-resilience levels before clinical practice as they felt more strongly that they were in good health ( $F=3.74, p=.026$ ) and as their personality was more outgoing ( $F=3.19, p=.002$ ). The stress and anxiety levels before clinical practice also had a positive correlation ( $r=.211, p=.010$ ) and the ego-resilience and anxiety before clinical practice had a negative correlation ( $r=-.313, p<.001$ ). Based on the finding,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mpetence improvement program that can reduce the anxie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in order to improve their ego-resilience.

*Keywords : Stress, Clinical practice, Anxiety, Ego resilience, Nursing student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우수한 간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중요한 필수적인 이론과 실습교육이며, 이는 학생이 예비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전문지식을 학습하여 실제 간호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과정이다[1]. 특히 실습은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학업성과 함께 본인의 진로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임상실습을 통해 스스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며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더욱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학생들은 실습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

간호대학생은 임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실습 시 처하게 될 낮은 환경, 예상치 못한 상황, 환자, 보호자 및 의료진과의 관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3]. 특히 첫 실습을 앞둔 경우, 간호학 전공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부족, 간호학생으로서의 역할의 모호성을 느낄 때 스트레스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다[4]. 그 외에도 학과 특성상, 단축된 기간 내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5].

스트레스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긴장,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며 신체적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6]. 특히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불안은 임상실습에 있어서 방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7] 본인의 실력발휘를 막아 성취도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8].

이에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거나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보호능력이며[5] 불안에 대해 민감성을 낮게 하고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하게 한다[9]. 따라서 학생들의 간호교육 목표 달성과 실습적응을 위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10] 학생들의 자아탄력성도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첫 실습 시 학생들이 겪게 되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한 자신감 저하는 학생들의 실습만족도를 감소시키게 되고 임상수행능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및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느끼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 때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므로[11]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자신감을 갖고 실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12].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자아탄력성[13]은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과 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의 내적 조절변인이라 할 수 있다[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연구로는 스트레스 요인 분석[15],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10,16,17],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과의 관계 [18] 등이 있으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 효율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본 론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교내 실습 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2) 첫 임상 실습 참여자
- 3)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자료 수집은 전공 교과목의 첫 임상실습을 실시하기 전인 2017년 12월 22일 임상실습 관련 교내 OT에 참석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25, 유의수준( $\alpha$ )=.05, 검정력( $1-\beta$ )=0.95, 요인변수 12로 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115명으로 제시되었다. 회수된 총 158부의 설문지 중 불확실한 응답이나 누락된 자료 12부를 제외한, 14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필요한 표본수를 충분히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황성자[19]가 간호대학생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여 개발한 총 58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개의 영역인 상황 특성, 개인특성, 외부적 조정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영역인 상황특성에는 '의료인의 태도' 6문항,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 6문항, '실습환경' 9문항, '실습상황' 9문항, '역할갈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특성에는 '심리적 요인' 7문항, '지식과 기술적 요인' 6문항, '사회적 요인' 4문항이며, 외부적 조정요인에는 '과제물' 4문항, '학사일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부터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은 미흡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19]에서 사용된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를 이용하여 실습 전에 측정하였다. 황성자[19]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8이었다.

#### 2) 불안

본 연구는 Spielberger[20]가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 성인의 불안 상태를 도구로 제작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한국인에 맞게 김정택과 신동균[2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10개 문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렇다'에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을 주고, 부정적인 10개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의 점수배열과 반대로 점수를 부여한다. 최하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택과 신동균[21]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는 Block과 Kremen[9]이 개발한 도구를 유성경과 심혜원[22]이 번안한 뒤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4개 문항의 5점 Likert척도이며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성경과 심혜원[22]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여자 125명(85.6%), 나이는 20세-25세 미만 142명(97.3%), 종교는 무교가 99명(67.8%)으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좋다'가 115명(78.8%), 성격은 '외향적'이 85명(58.2%)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학업 성적에 대해서는 3.0 이상-3.5미만이 61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하는 주거 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통학하는 경우(62명, 42.5%)와 자취(58명, 39.7%)가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66명, 45.2%), '적성 및 흥미에 맞아서'(45명, 30.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만족'이 90명(61.7%)으로 가장 많았다. 복수응답 문항으로 간호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자로 '친구'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62명(41.1%)으로 가장 많은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수님'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2명(21.2%)이었다.

취업 시 희망하는 진로로 '병원취업'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10명(71.4%)으로 많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병원 취업 시 희망하는 부서로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0명(26.3%)으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술실' 38명(25%), '병동' 31명(20.4%)의 높은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6)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21	14.4
	female	125	85.6
Age	20-24	142	97.3
	25-30	4	2.7
	christian	18	12.3
Religion	catholic	5	3.4
	buddhist	22	15.1
	atheist	99	67.8
	others	2	1.4
	healthy	115	78.8
Subjective health status	moderate	26	17.8
	unhealthy	5	3.4
	Personality	extroversion	85
introversion		61	41.8
Grade point average	2.5↓	4	2.7
	2.5~2.9	33	22.6
	3.0~3.4	61	41.8
	3.5~3.9	42	28.8
	4.0↑	6	4.1
Dwelling type	with parents	62	42.5
	dormitory	26	17.8
	rented room	58	39.7
motivation of admission	according to grades in high school	6	4.1
	employment rate	66	45.2
	suitable to aptitude and interest	45	30.8
	recommendation (parents, teachers)	18	12.3
	interest in service	11	7.5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90	61.7
	moderate	50	34.2
	dissatisfied	6	4.1
information provider*	elder	27	17.9
	friends	62	41.1
	professor	32	21.2
	family & relative	15	9.9
	others	15	9.9
desired career* (when employment)	employment in hospital	110	71.4
	health Teacher	6	3.9
	Industry Nurse	7	4.5
	nursing officers	20	13.0
	others	4	2.6
desired department* (when employment)	not considered	7	4.5
	ward	31	20.4
	outpatient department	8	5.3
	operation room	38	25.0
	emergency room	21	13.8
	intensive care unit	6	3.9
	others	8	5.3
	not considered	40	26.3

\*multiple responses

### 3.2.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는 평균평점 3.13점(5점 척도), 불안은 평균평점 2.58점(4점 척도), 자아탄력성은 평균평점 3.28점(5점 척도)로 나타났다(Table 2). 조사 대상자 및 조사시기가 상이하여 직접적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해 황성자[23]의 연구에서는 3.56점, 박복순[24]의 연구에서는 3.4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수정과 정면숙[25]의 연구에서는 3.0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의 경우, 첫 임상실습을 앞둔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경험으로 인해 다소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진일과 이정순[26]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상자가 실습 후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 단순히 시각상사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므로 스트레스 원인 등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26]에서는 실습 전보다 실습 후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스트레스 증가의 원인분석과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Table 2. Level of stress in before clinical practice, anxiety and ego-resilience (N=146)

	range	average Mean±SD	Min	Max
clinical practice stress	1-5	3.13±0.66	1.28	4.86
anxiety	1-4	2.58±0.44	1.55	3.45
ego resilience	1-5	3.28±0.54	2.00	4.64

불안에 대해 박인순 등[27]은 총점평균 44.88점, 한상영과 이영미[7]의 연구에서는 48.8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불안의 총점 평균 51.65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7,27]는 실습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이나 대인관계부분에 대해 자신감을 얻거나 정보습득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실습 전 나타나는 불안감보다는 다소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시 대상자는 기대와 호기심이 있으면서도 친숙한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임상현장의 특수한 공간에 투입됨으로써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28]. 따라서 실습 전 경험이 없는 경우가 실습 후보다 불안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숙희[29]가 임상실습 시작 전, 매일 4시간씩 1주일간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중재했을 시 중재전보다 중재후의 불안도가 더 유의하게 증가함을 나타냈다. 이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대했던 실습에 대한 자신감보다 낯선 환경과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불안을 가중시킨 결과였다[29]. 따라서 학생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학생들이 첫 임상실습을 하기 전, 교내 실습 시, 임상과 유사한 실습환경에서 교수 및 기관의 프리셉터를 참여시켜 실제상황에 적절한 시뮬레이션 반복수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은 조은주와 임경민[30]의 연구에서는 3.54점, 홍현화 등[31]의 연구에서는 3.6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30,31]와 조사시기 및 대상자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변화하는 임상 환경에 만족스러운 적응[32]을 하기 때문에 실습 후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는 성별( $t=-5.51, p<.001$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박복순[24]과 신수정과 정면숙[2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불안은 성별( $t=-3.30, p=.001$ ), 주관적 건강상태( $F=3.27, p=.041$ ), 성격( $t=-3.32, p=.001$ ), 간호학과 전공만족도( $F=7.25,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것처럼 볼 수 있으나 조사대상의 성별이 여

Table 3. Difference level of stress in before clinical practice, anxiety and ego-resilience by characteristics (N=146)

Variable	Categories	clinical practice stress			anxiety			ego resilienc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2.46±0.58	-5.51(.000)		2.29±0.34	-3.30(.001)		3.43±0.66	1.40(.161)	
	female	3.25±0.60			2.63±0.43			3.25±0.52		
Age	20~24	3.14±0.67	.22(.823)		2.57±0.44	-1.75(.081)		3.28±0.54	.31(.755)	
	25~30	3.06±0.18			2.96±0.33			3.19±0.45		
Religion	christian	3.22±0.73	.16(.960)		2.56±0.54	1.32(.264)		3.27±0.58	1.86(.119)	
	catholic	3.02±0.67			2.43±0.38			3.08±0.30		
	buddhist	3.08±0.73			2.63±0.48			3.46±0.53		
	atheist	3.14±0.63			2.56±0.41			3.26±0.53		
	others	3.01±1.04			3.22±0.31			2.50±0.70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3.12±0.69	.21(.807)		2.53±0.44	3.27(.041)		3.34±0.54	3.74(.026)	
	moderate	3.16±0.53			2.71±0.41			3.06±0.51		
	unhealthy	3.31±0.50			2.92±0.34			2.98±0.27		
Personality	extroversion	3.04±0.68	-1.94(.054)		2.48±0.43	-3.32(.001)		3.39±0.53	3.19(.002)	
	introversion	3.26±0.61			2.72±0.40			3.11±0.51		
Grade point average	2.5↓	2.73±1.11	.82(.514)		2.82±0.69	1.24(.294)		3.50±0.57	.51(.722)	
	2.5~2.9	3.08±0.75			2.63±0.41			3.25±0.61		
	3.0~3.4	3.10±0.56			2.61±0.43			3.22±0.53		
	3.5~3.9	3.24±0.67			2.46±0.44			3.35±0.48		
	4.0↑	3.27±0.74			2.55±0.38			3.32±0.71		
Dwelling type	with parents	3.09±0.58	.26(.771)		2.55±0.42	.24(.786)		3.29±0.56	.01(.981)	
	dormitory	3.13±0.79			2.58±0.45			3.28±0.49		
	rented room	3.18±0.68			2.61±0.45			3.27±0.54		
motivation of admission	according to grades in high school	3.25±0.61	1.31(.269)		2.70±0.52	1.18(.322)		2.84±0.49	1.79(.133)	
	employment rate	3.24±0.67			2.60±0.41			3.27±0.56		
	suitable to aptitude and interest recommendation (parents, teachers)	2.97±0.73			2.47±0.49			3.39±0.51		
	interest in service	3.04±0.51			2.66±0.47			3.23±0.57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sup>a</sup>	3.12±0.71	.07(.932)		2.48±0.46	7.25(.001)	a<b<c	3.34±0.58	1.76(.175)	
	moderate <sup>b</sup>	3.14±0.60			2.72±0.32			3.16±0.42		
	Dissatisfied <sup>c</sup>	3.22±0.19			2.92±0.52			3.30±0.71		

학생이 대다수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여학생이 많은 간호학과의 경우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및 불안감소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 중 전공만족도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가 '보통'과 '만족'한 경우보다 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시기 및 대상자가 동일하지 않아 직접비교에 제한이 있으나 불안에 대해 성별에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낸 김은영과 양승희[18]과 일치하였으며 학과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김은영과 양승희[18], 최귀윤[3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탄력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F=3.74, p=.026$ )와 성격( $t=3.19, p=.002$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화와 한승희[5]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본 연구와 일치하

였다. 이는 대인관계,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 때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5].

**3.4.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211, p=.010$ ). 즉, 불안이 높을수록 임상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사시기가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에는 차이가 있으나 한영미와 이영미[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불안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낮으며( $r=-.313, p<0.01$ ) 이는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Table 4). 신은정과 박영숙[34]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실습경험 유무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결과이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즉,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된다면 어떠한 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아탄력성이 증가할 것이지만 실습 전에

Table 4. Relation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anxiety and ego-resilience (N=146)

	clinical practice stress	anxiety	ego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1		
anxiety	.211(.010)	1	
ego resilience	.031(.709)	-.313(.000)	1

경험이나 정보가 미흡한 경우에는 단순히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하여 자아탄력성이 증가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5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성격과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불안을 독립변수로 하하고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유무를 확인하여 분석한 결과, 공차 한계는 0.896~0.950, 분산팽창 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53~1.116으로 분포하였고, durbin watson test결과 1.99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 $F=8.466, p<.001$ ). 분석결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격( $\beta=-.175, p=.031$ ), 불안( $\beta=-.234, p=.005$ )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은 13.4%였다(Table 5). 이미라와 전현숙[35]은 간호보건계열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격을 단순히 내향성, 외향성으로만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다. 자아탄력성은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경향이므로 불안 등의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아탄력성이 낮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36].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이거나 자아탄력성이 대학생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대학생의 정서적인 부분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 결론**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f ego resilience

(N=146)

Variables	B	SE	$\beta$	t	p	Adjusted R2	F	p
(constant)	4.501	.261		17.253	.000			
Subjective health status	-.104	.055	-.151	-1.904	.059	.134	8.466	<.001
Personality	-.193	.089	-.175	-2.182	.031			
anxiety	-.289	.101	-.234	-2.862	.005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불안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습 시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는 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불안 및 자아탄력성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성격과 불안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임상실습 전 대상자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면 실습 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2)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도구 개발이 미흡한 편이므로 실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적 연구를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References

1. N. S. Ha, M.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1, No.1, pp.13-21, (2005).
2. K. S. Park, Y. Y. Hwang, E. H. Choi, "The study of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t the intensive care unit",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15, No.3, pp.373-382, (2003).
3.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8-106, (2005).
4. S. H. Ko, K. M. Kim,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nurse*, Vol.33, No.2, pp.59-72, (1994).
5. S. H. Park, S. H. Han,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517-526, (2016).
6. K. S. Han, Y. K. Yang,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1, pp.23-33, (2014).
7. S. Y. Han, Y. 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ger and fatigue among stress factor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2, pp.554-561, (2012).
8. B. G. Bak, S. L. Im, "A meta-analysis of test anxiety with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4, No.4, pp.875-894, (2010).
9.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10. H. S. Yu,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2, pp. 1129-1144, (2015).
11. M. Y. Kim,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3, pp.1884-1893, (2015).
12.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 No.2, pp.216-225,



- (2011).
13. J. H. Block,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13, pp.39-101, (1980).
  14. Y. S. Park, Y. 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3, pp.341-350, (2013).
  15. A. K. Lee, H. S. You, I. 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2, pp.154-163, (2015).
  16. S. J. Hong, E. H. Kim,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0, pp.6204-6214, (2014).
  17. B. J. Park, S. J. Park, H. N.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220-227, (2016).
  18. E. Y. Kim, S. H. Yang,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4, pp.417-425, (2015).
  19. S. J. Whang,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tool for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stress", *Journal of the Margaret Pritchard College of Nursing*, Vol.14, No.1, pp.35-54, (2002).
  20. C. D. Spielberger,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 research", New York : *Academic press*, 1972.
  21. J. T. Kim, D. K. Shin, "A study based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korea.", *The New Medical Journal*, Vol.21, No.11, pp.69-75, (1978).
  22. S. K.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6, No.4, pp.189-206, (2002).
  23.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205-213, (2006).
  24. B. S. Park, "Stress and satisfaction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by sex role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Kwandong University
  25. S. J. Shin, M. S.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stress coping,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7, No.5, pp.441-455, (2016).
  26. J. I. Kim, J. S. Lee, "Effects of clinical training on stress, anxiety and changes in autonomic nervous syst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13, No.2, pp.102-108, (2011).
  27. I. S. Park, C. S. Kim, R. Kim, Y. J. Kim, M. H. Park, "Stress, anxiety and fatigu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2, pp.151-160, (2005).
  28. S. Y. Kang, "The social adjustment proc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Vol.1, pp.9-19, (2016).

29. S. H. Le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orientation program on anxiet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in nursing",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5, No.4, pp.539-547, (2008).
30. E. J. Jo, K. M. Lim,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mmunication skills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6, pp.618-628, (2016).
31. H. H. Hong, J. H. Kong, H. S. Kang, H. S. Jeong, S. K. Yang, "The study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ego-resilienc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2, No.2, pp.98-106, (2014).
32. J. S. Kim,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7, No.2, pp.94-102, (2012).
33. G. Y.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regarding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and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21, No.1, pp.129-139, (2009).
34.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1, pp.5636-5645, (2013).
35. M. R. Lee, H. S. Jeon, "Personality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861-8869, (2015).
36. Y. M. Han, "The 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resilienc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0, No.1, pp.97-110, (2009).